

아세안: 시간을 잇는 손

한-아세안센터
전주 아세안홀 개관전
한국전통문화전당 열림동 1층

ASEAN: WHERE HANDS BRIDGE TIME

JEONJU ASEAN HALL
INAUGURAL EXHIBITION
1F, Yeollim-dong,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공동 주최 CO-ORGANIZED BY



ASEAN-KOREA CENTRE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아세안홀

JEONJU ASEAN HALL

아세안홀

아세안홀은 한-아세안센터가 운영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전시, 강좌,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SEAN HALL

The ASEAN Hall is a multipurpose space operated by the ASEAN-Korea Centre, offering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exhibitions, lectures, and hands-on cultural activitie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between ASEAN and Korea.

전주 아세안홀

전주 아세안홀(2026년)은 서울 아세안홀(2009년)과 제주 아세안홀(2022년)에 이어 조성된 상설 전시공간으로, 아세안 11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전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주 아세안홀은 한-아세안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JEONJU ASEAN HALL

Following the Seoul ASEAN Hall (2009) and the Jeju ASEAN Hall (2022), the Jeonju ASEAN Hall is a permanent exhibition space that celebrates the rich diversity of cultures, arts, and traditions across all 11 ASEAN Member States.

*The Jeonju ASEAN Hall is jointly operated by the ASEAN-Korea Centr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onju City.

아세안 라이브러리

아세안 라이브러리는 전주 아세안홀 내에 마련된 공간으로, 아세안 회원국과 한-아세안 관계, 아세안의 문화와 관광에 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ASEAN LIBRARY

Located within the Jeonju ASEAN Hall, the ASEAN Library houses books on ASEAN Member States, ASEAN-Korea relations, and its culture and tourism. The collection is available for on-site reading.

아세안: 시간을 잇는 손

ASEAN: WHERE HANDS BRIDGE TIME

대나무를 쪼개는 손, 물소 가죽을 무두질하는 손, 연꽃 줄기에서 가느다란 실을 뽑는 손. 동남아시아의 오랜 시간은 이렇게 사람의 손끝에 쌓여왔습니다. 그 손이 만든 것들에는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시는 그 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익힌 손끝의 감각은 다음 사람에게로 건너갑니다. 무엇을 언제 자르고, 어떻게 말리고 물들이는지에 대한 지식은 스승에게서 제자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해집니다. 완성된 사물 하나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 이상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형태는 재료와 기후, 오랜 삶의 방식이 함께 빚어낸 결과입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가면도 그중 하나입니다. 완성된 가면의 역할은 사람의 얼굴 위에 놓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면은 몸과 만나 신화 속 존재가 되고, 공연이 끝나면 다시 하나의 사물로 돌아갑니다. 고향의 기억은 천 위에 수놓아지고, 의례를 위해 만든 악기는 서로 다른 사람과 장소를 거치며 새로운 자리를 찾습니다. 기술 역시 변화하는 환경과 쓰임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입니다. 천연 라탄으로 엮던 바구니가 새로운 재료를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의 짜임과 형태를 유지하듯, 전통은 하나의 모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오랜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세안, 시간을 잇는 손》은 가면과 몸, 자연과 형태, 물질과 소리, 빛과 그림자라는 네 개의 문을 통해 아세안의 공예와 공연 문화로 들어갑니다. 의례와 일상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사물에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전시는 완성된 사물만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오늘도 그것을 만들고 움직이는 손, 그리고 그 과정에 스며든 기술과 가치를 함께 바라봅니다. 아세안 각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품은 이 공예품들은 오랜 유산을 오늘의 삶으로 불러오며,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적 가교가 됩니다.

Hands split bamboo, tan buffalo hide, and draw fine fibres from lotus stems. Across Southeast Asia, generations of knowledge have gathered at the fingertips of makers. What they create bears the traces of different landscapes and ways of life. This exhibition begins with those hands. Skills learned over a lifetime pass from one person to another. Knowing what to harvest and when, how to dry it, and how to dye and prepare it moves from master to apprentice, from parent to child. A finished object holds more time than its visible form reveals. Material, climate, and long-established ways of living all shape what it becomes.

A carved wooden mask is one such object. Its role begins when it meets a human face. When worn, it becomes a figure from myth; when the performance ends, it returns to an object. Memories of home are stitched into cloth, while instruments once made for ritual find new settings as they move between people and places. Techniques als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s and uses. A basket once woven from natural rattan may adopt new materials while keeping its familiar structure and weave. Tradition does not remain fixed. Understanding natural materials, using them with care, and passing skills to the next generation also connect these practices to ideas of sustainability today.

ASEAN: Where Hands Bridge Time approaches the craft and performance cultures of the ASEAN region through four themes: mask and body, nature and form, material and sound, light and shadow. Objects made and used in ritual and daily life carry the histories, cultures, and experiences of their communities. Rather than looking only at finished works, the exhibition considers the time held within them, the hands that continue to make and animate them, and the knowledge carried through each process. Rooted in the histories and identities of the ASEAN region, these works bring inherited traditions into the present and connect them to the future.



인도네시아 바롱 가면
Barong Mask,
Indonesia

필리핀 모리온 가면:
클라우디아
Morion Mask: Claudia,
Philippines

싱가포르 풋훅 사자춤 가면
Fut Hok Lion Dance Mask,
Singapore

가면을 쓰다: 신화와 역사는 몸을 빌린다

가면은 얼굴을 가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한 사람의 몸을 다른 존재에게 내어주는 장치입니다. 나무를 깎아 색을 입히고 금박을 더하거나,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종이를 겹쳐 붙이는 등 재료와 제작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면의 역할은 완성되는 순간보다 사람의 얼굴과 몸을 만났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태국의 신과 영웅, 발리의 정령과 마녀, 필리핀의 성서 속 인물과 싱가포르 사자춤의 사자는 공연자의 몸을 빌려 눈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자신의 표정을 감추는 대신 몸짓과 호흡, 시선과 걸음으로 인물을 표현합니다. 크게 뜬 눈과 돌출된 송곳니, 얼굴의 색과 왕관, 움직이는 턱과 털 장식은 단순한 걸치레가 아니라 인물의 성격과 힘, 신분을 전하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때로는 두 명의 공연자가 하나의 사자 몸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어떤 가면은 의례를 거쳐 영적인 힘을 지닌 신성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면과 몸, 움직임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존재를 완성합니다.

사람의 몸을 통과할 때마다 신화와 역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가면은 오래된 이야기를 보존하는 사물에 머물지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손과 그것을 쓰고 움직이는 몸이 만날 때, 과거의 이야기는 오늘의 장면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WEARING MASKS: MYTH AND HISTORY BORROW BODIES

A mask is more than something that covers the face. For a moment, it allows a human body to become another being. Materials and methods vary from place to place: wood may be carved, painted, and gilded, while bamboo frames may be built up with layers of paper. Yet the purpose of a mask becomes clearest not when it is finished, but when it meets a face and body. Gods and heroes from Thailand, spirits and witches from Bali, biblical figures from the Philippines, and the lion of Singapore's lion dance take form through the performers who wear them.

Behind a mask, the performer gives up facial expression and instead speaks through gesture, breath, gaze, and movement. Wide eyes, protruding fangs, facial colours, crowns, moving jaws, and fur are not simply decoration. They form a visual language that conveys character, power, and status. Sometimes two performers move together inside a single lion body; some masks, after ritual consecration, are regarded as sacred objects with spiritual power. Mask, body, and movement come together to complete a single presence.

Each time myth and history pass through the human body, they unfold again in the present. A mask does more than preserve an old story. When the maker's hands meet the body that wears and moves it, the past becomes a scene of the present.



라오스 몽족 자수 기록화
Hmong Embroidery
Story Cloth, Lao PDR

동티모르 핑크-마젠타 이카트
줄무늬 타이스 페토
(원통형 치마)
Pink-Magenta Ikat Stripe
Tais Feto, Timor-Leste

브루나이
녹색 패턴 타키딩
(바구니)
Green Pattern Takiding,
Brunei Darussalam

옷을 입다: 실 한 올이 땅에서 온다

자연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삶에 필요한 형태를 얻습니다. 연꽃 줄기에서 뽑아낸 가느다란 섬유는 실이 되고, 면사는 천으로 짜이며, 라탄과 대나무는 서로 엮여 단단한 바구니가 됩니다. 아세안 곳곳의 식물과 생활 도구에는 자연에서 온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다뤄온 오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어느 계절에 거두고, 어떻게 손질해 재료로 만드느지는 지역의 기후와 식생, 생활 방식 속에서 익혀온 감각입니다. 실의 배열과 짜임을 달리해 직조 과정에서 문양을 만드는 방식, 천을 겹쳐 오리고 이어 붙이는 기법, 수많은 바늘땀으로 장면과 기억을 새기는 자수처럼 같은 재료도 손을 거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짜임과 문양에는 공동체의 기억과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 삶에서 축적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장인의 손은 재료의 결, 강도, 빛깔을 살피며 그 성질에 맞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와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 변화하는 환경과 만나면서 공예 역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을 소모하기보다 그 성질을 이해하고 오래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공예의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WEARING CLOTHES: EVERY THREAD COMES FROM NATURE

Nature takes on forms for daily life through human hands. Fine fibres drawn from lotus stems become thread, cotton is woven into cloth, and rattan and bamboo are intertwined into strong baskets. Across Southeast Asia, textiles and everyday objects hold generations of knowledge about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 materials from nature.

Knowing what to harvest in each season and how to prepare it comes from close experience of local climates, plants, and ways of life. Patterns may emerge by changing the arrangement and structure of threads during weaving, by layering, cutting, and joining cloth, or through countless stitches that record scenes and memories. The same material can take on very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how it passes through the hand. Weaves and patterns carry memories of community, ways of seeing nature, and knowledge gathered through everyday life.

The process is as important as the finished form. Makers read the grain, strength, and colour of a material and find methods suited to its character. As long-held skills meet changing environments, craft continues to take on new forms. This approach—understanding natural materials and using them for a long time rather than simply consuming them—also connects with ideas of sustainable craft today.

마음을 울리다: 소리는 가장 가벼운 예술이다

RESONATING IN THE HEART: SOUND IS THE LIGHTEST ART

악기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형태를 갖춥니다. 길이가 다른 대나무 관은 서로 다른 음을 내고, 하나의 현은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폭넓은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원형으로 늘어선 청동 공, 나무를 깎은 울림통, 코코넛 껍질과 가죽으로 만든 공명부처럼 아세안의 악기는 각 재료의 성질에 맞춰 저마다 다른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좋은 울림을 얻기 위해서는 재료를 다루는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얼마나 깎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당기고 조일지에 따라 악기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장인은 눈에 보이는 외형뿐 아니라 그 안에서 울려 나올 음색까지 가늠하며 형태를 완성합니다. 그 과정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제작 기술과 소리에 대한 경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완성된 악기는 연주자의 몸과 만날 때 비로소 울립니다. 손으로 두드리고 뜯고 활을 긋거나, 입으로 숨을 불어넣고 들이쉬는 움직임은 사물을 진동하게 합니다. 그 진동은 공간을 채운 뒤 다시 듣는 사람의 귀와 몸에 닿습니다. 장인의 손이 빚은 구조와 연주자의 호흡과 움직임이 만나는 순간, 공예는 청각과 몸으로 경험하는 예술이 됩니다.

An instrument takes shape in order to make sound. Bamboo pipes of different lengths produce different notes, while a single string can create a wide range of tones through the smallest movement. Circular rows of bronze gongs, carved wooden resonators, and chambers made from coconut shell and hide show how instruments across Southeast Asia have developed structures suited to the qualities of their materials.

A good sound depends on careful decisions about material. How much to carve away, how tightly to pull, and how strongly to fasten each part can change the voice of an instrument. A maker considers not only its visible form but also the sound that will emerge from within. Each object holds generations of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listening. An instrument finally comes alive when it meets the performer's body.

Hands strike, pluck, and draw bows across strings; breath is blown in and drawn out. These movements set objects into vibration. The sound fills the space and returns to the ears and bodies of listeners. When a maker's structure meets a performer's breath and movement, craft becomes an art experienced through sound and the body.

캄보디아 타악기 공 봉 톰
Kong Vong Thom,
Cambodia

미얀마 하프 사웅 가옥
Saung Gauk, Myanmar

말레이시아 현악기 사페
Sape, Malaysia



태국 낭야이 그림자극:
프라 람과 하누만
Nang Yai:
Phra Ram and Hanuman,
Thailand

베트남 수상인형극
무어 로이 느억
Múa Rối Nước,
Viet Nam

빛 아래 춤추다: 그림자는 빛이 쓰는 글이다

빛은 사물의 모습을 바꿉니다. 얇게 가공한 가죽은 빛을 만나 스크린 위의 인물이 되고, 물 위의 인형과 흔들리는 반사는 하나의 장면을 만듭니다. 조개껍데기와 유리처럼 빛을 통과시키거나 되비추는 재료도 각기 다른 표정으로 공간을 채웁니다. 같은 사물도 빛의 방향과 거리, 투과와 반사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아세안의 그림자극은 이러한 빛의 성질을 오랜 시간 이야기의 언어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교하게 뚫고 새긴 가죽 인형은 스크린 앞에서 신과 영웅, 인간과 동물의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조종하는 사람의 몸도 때로 그림자와 겹치며 장면의 일부가 됩니다. 수상 인형극에서는 목각 인형의 움직임에 물결과 반사가 더해져, 실제 사물과 그 이미지 사이의 경계를 흐립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그림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재료마다 빛을 받아 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그 차이는 색과 윤곽, 깊이와 움직임을 새롭게 드러냅니다. 장인의 손에서 완성된 사물은 빛과 만나 또 다른 모습을 얻고, 공연자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빛은 형태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래된 아세안의 이야기를 매년 새로운 장면으로 써 내려갑니다.

DANCING UNDER THE LIGHT: SHADOW IS THE WRITING OF LIGHT

Light changes the way things appear. Thinly worked hide becomes a figure on a screen, while puppets and shifting reflections on water create a scene together. Shell and glass transmit or reflect light in different ways. The same object can appear entir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rection and distance of the light, and on how it passes through or bounces from a surface.

Shadow theatre across the ASEAN region has long turned these qualities of light into a language for storytelling. Finely pierced and carved leather puppets move across the screen as gods and heroes, humans and animals. At times, the performer's own body overlaps with the shadow and becomes part of the scene. In water puppetry, ripples and reflections join the movements of carved figures,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the physical object and its image.

Light transforms more than shadows. Each material responds differently, revealing new colours, outlines, depths, and movements. An object made by hand takes on another presence in light and becomes part of a story through performance. Light does more than reveal form: each time, it writes the old stories of Southeast Asia anew.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입니다. 2009년 3월 13일 설립된 이후, 교역 증대와 투자 촉진, 관광 활성화,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ASEAN-Korea Centre (AKC)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moting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SEAN Member States. Established on the 13th of March 2009, the Centre works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y accelerating trade and investment, invigorating tourism, and fostering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It contributes to building a lasting and genuin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ASEAN.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을 통해 설립된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체입니다. 회원국 간 평화와 안정의 증진과 더불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SEAN is a regional organization in Southeast Asia established on 8 August 1967 through the Bangkok Declaration. It was founded to promote peace and stability among its Member States and to advance cooperation acros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Today, ASEA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al communities in the world. The ASEAN Secretariat is based in Jakarta, Indonesia.

창설 배경

Background of Establishment

아세안은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출범하였습니다. 1967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은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회원국 확대를 거쳐 현재의 11개 회원국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ASEAN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need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collective action amid the rapidly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in Southeast Asia. In 1967, Indonesia, Thailand,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adopted the ASEAN Declaration at a meeting of their Foreign Ministers. Since then, ASEAN has expanded its membership and evolved into the present community of 11 Member States.

회원국

Member States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Timor-Leste and Viet Nam

관람안내	개관 시간	월-토 09:00-18:00
	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
	관람료	무료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열림동 전주 아세안홀 (전주한옥마을에서 도보 약 11분 거리)

Visitor Information	Hours	Mon-Sat 09:00-18:00
	Closed	Sundays and national holidays
	Admission	Free
	Location	Jeonju Asean Hall, 1 st Floor, Yeollim-dong,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About an 11-minute walk from Jeonju Hanok Village)